'테루아 도서관' 루시엔 르 무앙… 론에서 그르나슈를 읽다

오래된 수도원의 고즈넉한 도서관이다. 한 권, 한 권 고유의 개성을 가진 책들이 정갈하게 꽂혀있는 가운데 하나를 골라 펼쳐본다.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와 현재의 내가 다르듯, 책 역시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와인으로 재해석해본다. 지하 깊숙한 셀러에는 고유의 테루아를 잘 담은 한 병, 한 병의 와인이 시간과 함께 숙성되고 있다. 와인은 잔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나고 자란 곳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루시엔 르 무앙(Lucien Le Moine)의 설립자인 뮈니에 사우마(Mounir Saouma·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 와인은 테루아와 빈티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물과 같다"며 "다양한 부르고뉴 테루아의 도서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루시엔 르 무앙은 뮈니에가 로템 사우마(Rotem Saouma)와 함께 1999년 설립해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만을 다루는 초소형 하우스다. 소유 밭 없이 포도를 사들여 와인을 만드는 네고시앙인데 부르고뉴에서도 테루아를 가장 섬세하게 해석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날은 지난달 루시엔 르 무앙의 공동 설립자인 뮈니에 사우마(Mounir Saouma)를 한국에 초청하여 브랜드 철학과 와인 스타일을 직접 소개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루시엔'은 빛을, '르 무앙'은 수도승을 뜻한다. 중동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시작된 그의 와인 여정과 함께 양조에 있어 수행자적 태도를 모두 나타내는 네이밍이다.

루시엔 르 무앙은 매년 각 마을의 가장 좋은 크뤼를 골라 크뤼당 단 1~3배럴만 만든다. 각 빈티지와 크뤼의 개성을 가장 정교하게 읽어내기 위해 모든 과정을 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도 100배럴, 약 3만병을 넘기지 않는다.

뮈니에는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역사, 문화, 농업, 인간의 경험이 결합된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와인만이 가진 고유성(Particularity)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왼쪽부터)루시엔 르 무앙 부르고뉴 루즈 2023, 루시엔 르 무앙 부르고뉴 블랑 2023, 로템&뮈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마지스 블랑 2022, 로템&뮈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옴니아 루즈 2020, 루시엔 르 무앙 뽀마르 프리미에 크뤼 레 그랑 제프노 루즈 2023. /안상미 기자

와인 양조 과정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된다. 길고,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 부르고뉴와 론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던 전통적 방법이다.

루시엔 르 무앙의 와인을 잔에 따르니 쨍한 투명함이 없다. 오랜 시간 침전물과 숙성하고, 따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뮈니에는 "침전물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아니라 와인의 구조와 질감, 후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과실 향을 넘어 테루아와 빈티지가 만들어내는 긴 여운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갈아만든 오렌지 주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진다. 냉장고에 하루 이틀 보관한 주스를 그대로 윗부분의 맑은 액체만 마시면 마치 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면 바닥까지 흔들어 마시면 질감과 풍미가 훨씬 풍부해진다. 와인도 똑같다.

그는 "자연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다. 바다에도 유기물이 있고, 숲에는 낙엽과 곤충이 존재한다"며 "와인 역시 자연의 산물로 지나친 정제와 표준화가 오히려 자연성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가장 큰 아군이다. 침전물과 어떠한 개입도 없이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 와인은 자연스러운 활력과 신선함을 가지면서 은은하고 일관된 풍미를 얻게 된다.

루시엔 르 무앙과 로템&뮈니에 사우마 와이너리를 방문한다면 2024 빈티지가 여전히 배럴에서 침전물과 함께 숙성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2024 빈티지라면 다른 곳에선 대부분 병입까지 마친 상태다.

로템&뮈니에 사우마 와이너리는 이들이 2009년 론 밸리의 샤또네프 뒤 파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론에서도 역시 긴 숙성과 최소한의 개입 방식으로 와인을 만든다.

뮈니에는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샤또네프 뒤 파프를 강렬함과 파워로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론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강렬함과 파워보다는 그르나슈가 가진 우아함과 긴장감, 그리고 테루아의 순수한 질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로템&뮈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옴니아 루즈'는 론을 하나의 병에 담아내고자 했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모든 것(All)'을 뜻한다. 5개 마을과 9종의 토양을 블렌딩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와인은 좋은 책과 같다. 뮈니에는 "좋은 와인(Great Bottle)은 가격이나 희소성, 혹은 평론가의 점수로 정의되지 않는다"며 "한 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이 좋은 와인은 계속 변화해 몇 분 후, 또는 몇 시간 후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유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LG전자-홍익대, '피지컬 AI' 전시로 미래세계 경험

9월 말까지 '행동하는 사물들' 운영

LG전자가 홍익대학교와 협업해 미래 피지컬 AI를 비주얼 아트로 구현한다.

18일 LG전자는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내 '금성전파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윤형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구현한 '행동하는 사물들: Things Around Us'로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전시 '눈치 있는 사물들'에 이어 '공감지능 AI'가 '행동하는 AI'로 확장되는 미래 세계를 선보인다. 전시는 가전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공간을 구현했다. 관람객이 미래의 피지컬 AI 세계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전시다.

피지컬 AI 아트 전시 '행동하는 사물들' 현장. /LG전자

전시 공간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오브제·스탠바이미2 등 7개 구역으로 나뉜다. 각 공간에서 순서대로 'Personal Gravity', 'AI Herb Lab' 등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LG전자의 스마트TV 웹 운영체제(OS)를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웹OS 탑재 LG TV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성택 LG전자 상무는 "LG전자의 미래 비전인 공감지능 AI가 일상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의 개념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렵고 딱딱한 기술 설명이 아닌,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교감하는 인간 중심 AI의 미래를 감각적인 예술 콘텐츠로 전달하고자 이번 전시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 'LG 갤러리 플러스(Gallery+)'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작품들을 무료 콘텐츠로 제공한다. /이승혁 기자 sh95@

더핑크퐁컴퍼니, DDP서 '아기상어' 몰입형 체험전시

오는 12월 19일까지 6개월간 진행

더핑크퐁컴퍼니가 생성형 AI와 아기상어 IP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 전시를 서울 DDP에서 선보인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아기상어 IP를 활용한 AI 인터랙티브 전시 '아기상어 비밀 초대장: 비커밍 샤크'를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음성인식·합성(STT·TTS), 컴퓨터비전(CV) 등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약 500평 규모 전시장에는 7개 체험존과 20여 개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AI가 생성한 '나만의 상어' 캐릭터를 부여받고, 이를 기반으로 심해와 블루홀, 별빛 산호숲 등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게 된다.

주요 체험 공간에서는 AI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상어가족 캐릭터, AI 음악 제작, AI 요리 체험, 선택형 스토리 게임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관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화 영상으로 제작돼 디지털 굿즈 형태로 제공된다.

전시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며 국내 관람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겨냥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정의·진실이 사라진 사회를 고발하다

이탈리아 문학 최초의 정치 소설

'올빼미의 낮'은 이탈리아 문학에서 마피아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최초의 정치 소설이다. 범죄 소설 형식을 사용하여 사회 내 권력과 부패를 비판하는 이 소설은 벨로디 대위가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권력, 침묵, 정치적 결탁의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과정을 따라간다. 샤샤의 작품은 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사회적 공모와 타협에 뿌리내린 정의 실패의 이유를 탐구한다.

이탈리아 문학에서 마피아의 실체를 최초로 정면 고발한 정치 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레오나르도 샤샤의 대표작 '올빼미의 낮'(1961년 출간)은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존재를 부인했던 마피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소설로, 출간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샤샤는 범죄 및 미스터리 소설의 개념을 포함하는 '로마니에로' 형식을 사용하여 살인 사건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진실이 은폐되고 정의가 실패하는 사회 구조를 면밀히 추적했다.

레오나르도 샤샤(1921~1989)는 시칠리아 라칼무토 출신의 이탈리아 작가이자 정치인으로, 20세기 이탈리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샤샤는 시칠리아를 권력, 불평등, 침묵, 부패를 체현하는 세계의 축소판으로 봤다. '올빼미의 낮' 이후에도 그는 '각자에게 그의 것'(To Each His Own)과 '토도 모도'(Todo modo) 같은 작품에서 로마니에로 형식을 변주하며 마피아와 권력 간의 공모, 그리고 국가 정치에 만연한 부패를 계속해서 폭로했다.

올빼미의 낮
레오나르도 샤샤 지음/이현경 옮김/민음사

샤샤는 또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문학에서 탐구했던 정의와 진실의 문제를 정치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그는 이성과 진실을 대변한 작가이자, 부패가 통치의 불변의 조건이 아님을 상기시킨 도덕적 지식인으로 기억된다.

번역가 이현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및 비교문학 학사, 비교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성씨대사전', '이것이 인간인가', '보이지 않는 도시들' 등 다수의 작품을 번역했다.

180쪽. 1만3500원. /윤휘종 기자 yhj@